

“대학의 우수성·대학만의 브랜드 알리는 침병 역할 할 것”

전북대 제18기 학생홍보대사 18명 임명... 1년 동안 각종대외 행사 지원 등 벌이기로

“전북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성과 브랜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대외에 알리는 데 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 18명이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대는 지난 2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제18기 학생 홍보대사들에 대한 임명식과 제17기 학생 홍보대사 수료식을 가졌다.

이남호 총장은 나영채(정치외교학과 4년) 학생을 비롯한 18명의 신입 홍보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해 왔던 서상훈 학생(신문방송학과 4년)을 비롯한 1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대외 행사 지원을 비롯해 입시홍보, 내방객들을 위한 캠퍼스투어 진행, 온라인 홍보, 각종 영상물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나영채 학생(18기 홍보대사 대표)은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보내고 올해는 우리대학이 새로운 100년



전북대는 지난 2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제18기 학생 홍보대사들에 대한 임명식과 제17기 학생 홍보대사 수료식을 가졌다

을 준비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위상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대학의 우수성과 대학만의 브랜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침병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정읍 소성면, 화재 피해 가구 위한 위로금 기탁

소성면이 최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신천마을 이모씨에게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피해 가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한 독자가 익명으로 기탁한 것이다.



면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 내부가 반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으나 주택을 포함해 고추 건조기 등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면은 이번 성금 전달에 앞서 침구류와 생필품, 의약품 등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화재 피해 복구비 150만원을 지원했다. 또 마을 주민들은 심시알반으로 성금 1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한편 이모씨의 사위 안정용(임암면 구면마을 돼지농가)씨는 이웃들의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 신천마을에 소화기 50대(150만원 상당)를 기탁했고, 이후에도 주민들의 화재 보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한국수력원자원 무주양수발전소 소외계층 위한 무료급식 12월까지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 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와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을 전년에 이어 지난 2일 1회차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연간 11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에서 연간 총 880만원 지원이 이루어지며, 무료급식 진행 시 배식지원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이명주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하여 준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부안 밝은사회 여성클럽, 다문화가족 오곡밥나누기 행사 진행

부안군 밝은사회 여성클럽(회장 심계천)은 지난달 28일 부안군 노인회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오곡밥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부안 밝은사회 여성클럽은 이날 정월대보름의 유래를 알아보고 풍습체험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명절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결혼 이주여성과 밝은사회 여성클럽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훈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명절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한국의 풍습을 알고 배우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안군 밝은사회 여성클럽 심계천 회장은 “정월대보름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 희망과 밝음을 상징하는 꼭 찬 보름달처럼 다문화가족에게도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알찬 행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회장 홍종식)는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태극기 계양을 통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김제시 금구면 소재지 주변 마을에 20여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3월 1일 당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사업 전개를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온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는 매년 3·1절 등 국경일마다 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태극기 무료 계양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날 캠페인은 200여 곳에 이르는 금구면 금구리 일대 상가 및 가정에 태극기를 직접 설치해 주고 태극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도 전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금구리 상하 마을 등 지역 이장 등과 연계한 태극기 전달식을 통해 마을 내 노후된 태극기를 일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 회원들이 손수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3·1절의 참뜻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부 홍종식 회장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김제시민들이 3·1운동의 정신인 단결, 화합을 이뤄내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일 유근주 부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유근주 부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공정한 선거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후2동 교통안전·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은 2일 전일중학교 앞에서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율방범대원, 인후2동주민센터, 모래내지구대 직원,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 안내문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종구 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캠페인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는 우리 동 특성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방범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율방범대는 평소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규남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